

>June 28. 2012 Juch 101

<http://www.kcna.co.jp/item/2012/201206/news28/20120628-23ee.html>

DPRK Woman Interviewed upon Her Return Home

Pyongyang, June 28 (KCNA) -- DPRK woman Pak Jong Suk was interviewed by Korean and foreign reporters at the People's Palace of Culture on Thursday. She returned home after being taken away to south Korea.

Present there were media persons from the DPRK,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hina, Russia and the U.S.

Pak told about how she was taken away to south Korea.

She said she was residing in Rapuk-dong No. 1, Ranam District of Chongjin City, North Hamgyong Province. "I illegally crossed the border on the night of March 29, 2006 in a foolish hope of meeting my father who went to south Korea due to the A-bomb scare made by the U.S. imperialists during the Korean War and getting money from him", she said.

"I was taken in by the luring tactics of south Korean Intelligence Service agents in an alien land and handed over by them according to their scenario. This was how I was taken to south Korea at around 9 a.m. of June 29 of the same year", she added.

She recalled that while living in south Korea for six years she led a life little short of a miserable slave's for want of money.

Referring to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defectors from the north", she said the jobs they could find at best were nothing but waste cleaning, vessel washing and servicing and other most hateful and difficult jobs.

The suicidal rate among them is five times that among other south Koreans, she said. They ardently wish to return to the DPRK, cursing corrupt south Korean society and reproaching themselves.

She spoke of what she felt after coming back to the DPRK on May 25 after diverting the watch of IS agents.

"A single misstep made me fall into a bottomless pitfall, leaving disgrace to my children. But my motherland injected life-giving water to me who might have become a forlorn wandering spirit," she noted.

"When I deplaned, quieting my thumping heart, I was stunned by the cordial reception given by officials concerned," Pak said, adding:

"I felt at that time how affectionate and great the motherland is to me.

I would have no more to desire before I die.

The dear respected Kim Jong Un did not blame me who did so many wrongs in the past but brought me under his warm care. He showed profound loving care for me. Kim Jong Un made sure that I, little different from an offender, reside in Pyongyang with my son who is a teacher of Pyongyang Kim Won Gyun Conservatory and daughter-in-law.

I am neither a patriot nor a hero who made any tangible contribution to the country. I am an ingrate who had betrayed my motherland to seek better living while others devoted themselves to building a thriving nation, tightening their belts.

I deserve punishment. But Kim Jong Un did not blame me but was so kind as to enable me to enjoy the greatest happiness. How can I forget this profound love and benevolence so long as I am alive.

The world does not know such tender-hearted leader as the dear respected General Kim Jong Un.

I was reborn thanks to Kim Jong Un identical to the great Generalissimos." Pak, together with the son and daughter-in-law, sang a song "My Unforgettable Path," determined to remain intensely loyal to Kim Jong Un, the tender-hearted father of the great family of the country, generation after generation.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

주체 101(2012)년 6 월 29 일 금요일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두번다시 태어났다
남조선리히패당에게 유인당하였던 여성 국내티기자들과 희견

http://www.rodong.rep.kp/InterKo/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12-06-29-0035

【평양 6 월 28 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리히패당에게 유인당하였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박정숙녀성이 28 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국내티기자들과 희견하였다.

기자희견에는 우리 나라 출판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기자희견에서는 먼저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라북 1 동에서 살다가 리히들의 유인에 걸려 남조선에 끌려갔던 박정숙녀성이 발언하였다.

그는 기자희견장에 나서니 수치스러운 과거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일시적인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사에 눈이 어두워 다니다가 종당에는 리히정보원놈들의 간계에 넘어 조국과 정다운 이웃들, 일가친척들을 배반하고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졌던 사람이다.

예로부터 나라를 배반한 죄는 제일 크고 용서받을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서서는 나를 크게 탓할 대신 오히려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재생의 삶을 누릴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정말 끝을 꾸는것만 같고 도무지 이 현실이 떨어지지 않는다.

나라에 보탬은커녕 치되는 일밖에 한것이 없는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민들과 세사사람들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어 기자희견을 요청하였다.

이어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 리희 등의 유인전송에 걸려 남조선으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으면 한다.

대답 : 적들의 꼬임에 빠져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것은 전적으로 나의 사상정신상태가 잘못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나의 머리속에는 어머니 조국과 순경을 같이 하며 강성국가건설에 헌신바치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겠다는 생각보다 자기맛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사상이 더 크게 지배하였다.

결국 눈앞의 어려움만을 생각하였고 나중에는 남조선에 있는 아버지를 중국에서 만나 돈을 얻어보려는 망상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6년 3월 29일 밤 남쪽대 비법원경하였다.

아버지를 만나면 돈을 얻을수 있다는 미련한 생각을 품고 지경밖으로 내쫓은 그 걸음이 나앞에 얼마나 큰 천을 짓는 길인가를 미처 몰랐다.

중국 동북땅에 이른 나는 가슴을 조이며 거처지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느 한 벽돌집에서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게 되었다.

그 집주인은 조선말을 할줄 알았는데 사연을 듣고 아들과 무엇인가 토론하더니 나를 윤곽에 있게 하였다.

하루는 집주인이 이제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겠는데 물어보는 말만 대담하고 다른 말은 일체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후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하는 사람은 나의 이름과 생년월일, 형제관계를 알아보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3~4일 지나 집주인이 나에게 아버지를 만나려면 배를 타고 칭다오 (청도)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나를 차에 태워 다리엔 (대련)의 어느 한곳에 데려갔다.

그곳에서 약 일주일간 머물러있었는데 하루는 《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나를 사진찍어가는 것이었다.

후에 알일이지만 그자는 리희들에게 매수되어 우리 사람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는것을 업으로 하는 놈이었다.

이틀후 그자가 나타나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하면서 차에 태워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는 리희 등의 각본에 따라 이 높 저 높의 손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6월 28일 오후 4시경 단둥 (단동) 항에서 한 여성과 함께 《칭다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9시경 배가 정박하자 함께 배에 올랐던 그 여성은 나의 위조증명서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에서 내렸다.

그리고 어느 한 건물 1층 위생실앞에 나를 세워놓고 이제 누가 볼것이라고 하고는 가버렸다.

이어 어떤 남자가 건물 3층으로 데려갔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얼굴이 길죽하고 건방지게 생긴자가 책상우에 놓여있는 지함에서 무슨 음료를 꺼내주면서 《진실말을 말하게 하는 약이다.》라고 빈정거리며 여기가 남쪽땅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서야 나는 남조선에 밭을 들여놓았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칭다오로 가는 사람인데 배를 잘못 탄것 같다.저 배를 타고 당장 돌아가겠다.》고 소리치며 항변하였다.

그러나 늙들은 웅면서 밭벼둥치는 나에게 《여기는 가고싶으면 밭대로 가는데가 아니다.》라고 하며 끝내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데려갔다.

나는 늙들에게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다가 남쪽에 잘못 왔으니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들이댔지만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늙들은 공화국에서의 경력과 생활경위 등을 물어보고 그에 대해 쓰게 하고는 얼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였으며 지어 조총까지 하며 모욕을 주었다.

한번은 《탐견실》이라고 쓴 방에 나를 끌고가 손과 밭,가슴에 전기줄을 붙여놓고 북을 번쩍이며 묻는 밭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강박하였다.

지금도 무서운 공포탄 양박속에 시달리던 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쳐 깨어나곤 한다.

이렇게 20일정도 취조를 받은 후에야 늙들에게 끌려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그런데 병원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뇌수술을 받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된 상태였다.

그때에야 나는 늙들에게 속히줬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나의 얼굴도 보지 못한채 사랑하였다.

지금도 우리 공화국주변에는 리허정보원의 돈을 받아먹고 우리 주민들을 유리하는자들이 죽을 늘이고 걸려들기만 기다리고있다.

총련 조선신보사 기자 : 박정숙녀성이 남조선으로 끌려나가 6년간 살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말해달라.

대답 : 아버지는 비록 숨졌지만 이복동생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럭저럭 살아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천진한 생각이였다.

이복동생은 만날 때마다 밭뿐이고 더우기 자기에겐 피해가 몰가뵈 늘 나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할수없이 80살되는 이모사촌오빠의 집을 찾아가 앓고있는 형님의 간병을 해주며 살았는데 친척집에 얹혀산다는것이 밭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재정적부담때문에 더 있지 못하고 사촌오빠가 알선해준 한 호인의 집에서 간병원노릇도 하였다.

나중에는 운신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90살나는 호인의 집에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그야말론 돈에 팔린 가련한 노예나 다름없었다.

같은 수치와 모욕을 참아가며 지하철도역과 아빠트복도,승강기 청소 등 일거리라면 닦치는대로 하였다.

이렇게 갇힌채 살아가는데 여기에 걸음걸음 감시와 전화도청까지 끈질기게 계속되며 공포탄 불안,초조감속에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번은 라원주라는 녀성의 소개로 공업원료를 생산하는 한 회사에 밭을 들여놓았다가 사장늙에게 사기만 당하였다.

억울하고 분하여 매일같이 회사를 찾아다니며 사정하였으나 조소한 격시만 받았다. 온 정신이 거기에만 쏠려있다나니 지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지하철도 계단에서 거꾸러져 무릎을 상하였다.

그러나 돈이 없어 다친 다리를 제때에 치료받지 못해 지금도 잘 걷지 못한다.

남조선은 정말 썩고 병든 사회이다.

거리에 나가도 온통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들과 광고들로 간장판을 이루어 뭐가 뭔지 통 알수가 없다.

TV를 켜도 모두 음탕하고 퇴폐적이어서 보면 머리가 땡하여 도려 꺼버리곤 하였다.

들려오는 소리들도 《금은세공방주인에게 약념은 술을 먹이고 금품을 털어갔다.》

느니,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한 사기를 쳤다.》 느니, 《아버지를 법정에서 불러내어

땅과 재산을 빼앗았다.》 느니, 《애인을 목을 눌러 죽이고는 사랑보험금을

타먹었다.》 느니, 《10대의 아이들이 탄복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하였다.》 느니

하는따위뿐이다.

현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살아가기 위해 돈에 미쳐 돌아갔다.

작년 10월 어느날 밤중에 갑자기 숲이 딱혀 경찰병원에 간적이 있었다.

의사라는 높은 생명이 위급하므로 빨리 보호자부터 대라는 것이었다.

보호자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입원할수 없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숲이 딱히는데다가 야밤삼경에 돌아가야 또다시 실려오겠는데

병원복도에도 조곤 앉아 안정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때도 그 높은 악무가 내린 나를 뿌리치며 병원밖으로 빨리 벗어나던가 아니면 당장 보호자를 대라고 야단치는 것이었다.

순간 너무도 분격하여 병원이 떠나갈듯 큰소리를 지르고는 정신을 잃고말았다.

의사가 환자를 놓고 보호자를 찾는것은 만약 내가 죽으면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러리당국자들은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면 잘살수 있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라고 입버릇처럼 떠들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한 유설이다.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차넘치고 사회악이 팽을 치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인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사회,사람들을 정신문화적으로 타락시키는 썩고

병든 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호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 기자 : 일부 사람들이 박정숙녀성처럼 남조선으로
나갔는데 그들의 생활형편,상태가 어떠한지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대답 : 남조선러리들은 우리 공화국에서 살다가 남조선으로 나간 사람들을 《
탈북자》라고 부른다.

그중에는 조국과 인권을 배반하고 도주한 반역자들도 있지만 늙들이 말하는 《

탈북자》 들은 나와 같이 일시적인 생활난과 친척방문,사업상 등의 이유로 중국을

비슷한 주변나라들에 갔다가 러리들의 유인,양치,매수책 등에 걸려 남조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리희정보원으로 끌려가 중치인취급을 당하게 된다.

처음 10여일간은 독감방에 갇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항변 한마디 못하고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한다.

오죽하였으면 지난해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에서조차 《탈북자》 등의 독감방에 대해 문제시하는 글까지 냈겠는가.

신문을 받는 기간 그들은 감시자의 가혹한 행태속에 위생식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여성들의 경우에는 취조관놈들의 성노리개대상으로 되고말다.

이렇게 한달 또는 그이상 리희정보원에서 온갖 정신육체적고통을 받다가 나오면 《하나원》 이라는데 옮겨지는데 그곳 또한 감옥이나 다름바 없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곳인데 아침 5시에 교회에 끌고가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일 반공사상을 불어넣고 자본주의사회의 썩어빠진 사상문화와 약육강식의 법칙을 주입시킨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석달동안 담담관들의 형포무도한 양박과 통제,사방에 설치된 카메라의 감시속에 뛰출,연히,전화도 할수 없다.

이렇게 놈들의 끈질긴 견토와 《교육》을 마치면 사회에 내던져지는데 이때부터 모진 천대와 멸시,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치열한 생존경쟁의 싸움판에 뛰어들어야 한다.

《탈북자》들에게 차례지는 일자리란 오물청소,그릇닦기,시중듣기 등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일뿐이다.

여성들인 경우 유흥업소에 매매되거나 음탕한 한상촬영에 내몰리는 등 구경탕이에 빠지고있다.

더우기 그들의 《주면등록증》에는 별도의 번호가 찍혀있어 어디를 가나 인면당하고있다.

극심한 생활난과 그집사처갓 뒤따르는 사회적인 행태와 따돌림까지 계속되다나니 그들은 정신적불안과 만성적인 피로감 등으로 각종 병마에 시달리고있다.

어쩌다직업을 구해도 또 떼웁가바 매일같이 걱정하며 갖은 고역을 당하고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여 죽는길밖에 없다.

때문에 모두 타락하여 마약과 사기,성매매 등 범죄의 길에 빠져들고있다.

출판물들의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이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이며 그중에서 《탈북자》 등의 자살률은 여느사람들의 5배에 달한다.

김옥란이라는 젊은 여성은 나에게 《남조선사회에 환멸을 느낀다.공화국으로 돌아갈 결심이다.》 라고 하면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한 유흥집에 들어가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참으며 일하였다.

그러나 돈을 받을수 없게 되자 절망감에 빠져 끝내 자살하고말았다.

현재 《탈북자》들은 부지런히 일하면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애쓰지만 더욱 어려워만지는 비참한 생활처지를 한탄하며 때늦은 후회를 하고있다.

그리고 명절날,생일날이면 고향이 그리고 조국을 잊지 못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있다.

지금 그들은 어지러운 남조선사회를 저주하고 자신들을 원망하며 공화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있다.

그러나 자기들이 나라앞에 지은 죄때문에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으며 감시한 통제가 그집사처전 뒤따르기때문에 어찌지 못하고있다.

나는 이 기회에 그들에게 말하고싶다.

본의든 본의아니든 어머니조국을 두고 나간사람들은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려 한다던 저주로운 남조선사회를 박차고 공화국의 품으로 주저없이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조국은 너희 같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공화국의 품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따뜻이 안아주고있다.

평양타임스 기자 : 지금 리희패당이 《탈북자》 들을 통한 반공한국모략책동에 광분하고있는데 이에 대해 남조선에서 직접 보고 들었거나 체험한 사실들이 있으면 말해주었으면 한다.

대답 : 내가 남조선에 있을 때 리희정부와 국회, 언론등에서 늘 들려오는 소리는 《탈북자》 문제니, 《북인권》 문제니 하는것들이였다.

지금 리희패당은 《북인권》 소동에 《탈북자》 들을 써먹고있는데 리희들이 내세우는자들은 우리 제도에 대해 양심을 뒤흔었거나 공화국에서 법치를 저지르고 도망간 더러운 인간추물들이다.

이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은 리희보수패당의 비위를 맞추어가며 몇푼의 돈을 바라고 반공한국대결에 미쳐 날뛰고있다.

지금 리희패당은 반공한국대결선전에 수달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적십자단체》 니, 《자원봉사자》 니 하는 이름으로 《탈북자》 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서 꼬여서는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남조선사회를 미화분식하는 온갖 허위타 악담을 늘어놓거나 구호를 웨쳐대며 시위까지 추동질하고있다.

거짓과 허위호 반공한국대결을 선동하는것이기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낯장판이 벌어질 때가 많아 돈으로 꼬여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고있다.

언제인가 리희언론등에서 《탈북자》 들이 중국에 나갔다가 북에 잡혀갔다고 크게 떠들어댄 일이 있었다.

후에 알고보니 역적패당이 반공한국모략선전을 위해 남조선에서 더는 살수 없어 대양건너호 갔거나 이미 죽은사람들의 이름까지 이용하여 그렇게 꾸며댄것이였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 남조선으로 오게 되였는가고 물으니 식당에서 만나 뭉치돈과 값비싼 물건들을 주는데 유혹되어 왔다는 사람, 술에 취해 위생실에 들어갔는데 칼부림을 하며 위협하여 끌려오게 되였다는 사람, 여자들의 꼬임에 속아 오게 되였다는 사람 등 천태만상이였다.

진짜한 인권유린의 왕초는 다름아닌 리희박패당이다.

오늘 리희패당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계속 떠들고 더러운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발악하고있지만 그야말로 부질없는 노릇이다.

중국 신화통신사 기자 : 어떻게 되어 공화국으로 돌아오게 되였는지 그에 대하여 말해주었으면 한다.

대담 : 원래 나는 중국에서 아버지를 만나 도움을 받은 다음 다시 공화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였었다.

그러려하고 어리석은 타산이 리허정보원놈들의 마수에 걸려 뭉거뭉거런 사라지고말았지만 남조선에 끌려가있는 동안 언제 한번 공화국에 대한 생각,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생각을 잊어본적이 없었다.

이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수없이 노력하였지만 등장날가봐 누구한테 놓고 말해볼수도 없고 똥 걸음걸음 돈이 있어야만 했다. 조국에 오고싶었지만 너무나도 딱딱하게만 생각되어 절망과 허무함에 빠져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러던 때인 지난해 8월 TV 화면에서 한씨야권방에 대한 격사적인 방문을 진행하시는 위대한 김정 일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빚옵게 되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척해진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씨비리, 원동지역에까지 가신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조국을 버리고 더러운 시궁창속에서 헤매는 자신을 저주하고 똥 저주하였다.

복잡다단한 우리 가정을 차별없이 대해주시며 일흔번째 생일을 맞는 어머니에게 생일상도 안겨주시고 아들을 평양음악무용대학 (당시) 을 졸업시켜 교단에 세워주시였으며 동생을 과분하게 평가해주신 장군님의 은혜를 갚지는 못할망정 내 지금 어디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있단말인가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결단성있게 행동하지 못한 자신을 직책하며 가다가 숲이 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해주시려고 그토록 애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전격차에서 너무도 뜻밖에서 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자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오열을 터뜨렸다.

장군님께로 돌아가 무릎꿇고 속죄하려고 했는데 이 어찌된 일인가.

죽더라도 기어이 조국땅에 가서 묻히겠다.

나의 온정신은 공화국으로 향하였고 더이상 무서운것도 없었다.

나는 리허정보원놈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저주로운 남조선땅을 떠나 뚝에도 그립던 어머니조국,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겼다.

민주조선사 기자 : 그처럼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공화국으로 돌아온 지금 심정이 어떠한지 말해주었으면 한다.

대담 : 어머니조국은 밭을 잘못 디디어 천길낙에 굴러떨어졌던 나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었다.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며 비행기승강대에서 내리는 나를 해당 일꾼들이 반가게 맞아주었을 때 깡짝 놀라 어안이 벙벙하였다.

식고양을 채워도 할말이 없는 나였다.

그날밤 나는 별이 총총한 평양의 밤하늘을 보고 똥 보며 생각하였다.

조국이란 두 글자가 이렇듯 정답고 크나큰 것이구나, 내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나를 기다리고있는지 상상도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서서는 나의 죄많은 과거를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었다.
김정은장군님께서서는 죄인이나 다름없는 나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교단에
서있는 아들과 함께 평양에 모여살도록 해주시었다.
나는 낚들이 허리띠를 조이며 강성국가건설에 피타 땀을 바칠 때 저런 잘살겠다고
어머니 조국을 버렸던 배은망덕한 죄인이다.
재생의 삶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찾았다.
지난날을 속죄하고 대원수님들께 못 다한 충정을 합쳐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을
깨끗한 양심으로 받들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같은 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 같은 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계시어 나는 두번다시
태어났다.
박정숙녀성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 대를 이어 충정을
다해나갈 불타는 일념을 담아 아들, 며느리따와 함께 노래 《못 잊을 나의 길》을
절절하게 불렀다.
그는 아들, 며느리따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어버이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Copyright @ 2010-2012 by The Rodong Sinmun. All rights reserved.